



미래를 위한, 물

WATER FOR OUR FUTURE

## 해리 칼리오

해리 칼리오의 도도새 프로젝트는 생태학적 순환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도새는 무인도였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고 있었고, 1507년 유럽 탐험가들이 그 섬을 발견했을 때 처음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 새들은 오랜 시간 천적 없이 평화롭게 지내온 탓에 날개가 퇴화되었고,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독일 정착민들에게 가장 쉬운 사냥감이 되었다. 1662년 도도새를 보았다는 마지막 기록만을 남겨두고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작가는 별다른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고, 간단한 스케치와 화석 일부가 전부였기에 복원을 위한 자료조사 기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부여했다. 실제로 옥스퍼드대 자연사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뼈 화석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였고, 전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도도새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집했다. 퇴화되어 작아진 날개, 굵은 다리와 열매를 먹기 위한 큰 부리를 가진 새의 특징을 살려 모형을 만들었고, 직접 모리셔스 섬의 숲과 해변가에 배치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촬영했다.

사진을 통해 도도새의 부활을 꿈꾸던 작가는, 단순히 멸종된 도도새만을 기리는 것이 아닌 전 인류적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경고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신혜원 -

## Harri Kallio

The Dodo and Mauritius by Harri Kallio represents the ecological cycle as well as the symbiotic relationship of all life.

Dodo birds were living on the then-uninhabited island of Mauritius when European explorers arrived in 1507. The birds became an easy target for the German settlers because they were flightless with atrophied wings after a long period of time on the island without any natural enemies. Dodo birds eventually became extinct, with the last sighting taking place in 1662.

No images of the bird remain save for a few simple sketches and partial fossils, Kallio invested over a year in extensive research to restore our awareness of the dodo. He even visited the Oxford Natural History Museum to see firsthand dodo fossils and traveled to libraries and museums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ll that he could about this lost species of bird. Kallio built a model of the bird which has small atrophied wings, stout legs and a big beak for eating fruit. He placed his model birds in the forest and on the beach of Mauritius and photographed them for three years from 2001.

Through the reconstructions of extinct dodos in his photos, Harri Kallio is sending a message of harmony with nature as well as a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a damaged environment and ecosystem.

- Stella Hye Won Shin -





